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원도회”

대한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 **장효성** 회장



제8대 시·도회장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전국 시·도회가 시·도회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지 한 해가 지났다. 본지는 향후 임기동안 시·도회를 이끌어 갈 전국 시·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들어 보는 자리를 마련해 연재하고 있다. 이 번호에는 활달한 성격으로 넓게 분포된 강원지역 회원사를 아우르는 장효성 강원도회 회장을 만나보았다.[편집자주]

제8대 회장으로 선임된 소감과 각오

먼저 저를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강원도회 회원사 여러분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각종 경제 지표가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건설업은 공공공사의 존용이 매우 높고 민간 건설경기는 거의 정체 상황이며 한정된 공사로 인해 강원도 내 업체들의 공사 평균 수주량은 전국 최저수준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업계 현실에서 강원도회는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공사물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리발주를 통한 우리설비업체의 일감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사들이 최대의 수익창출을 통해 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 설비업계의 대변자가 되어 강원도회 회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업

첫째, 회원사 매출이익 증대를 위해 설비공사 수주환경 개선

강원도회는 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시행, 단순 복합공사의 원도급 수주확대, 저가하도급 방지 등 설비공사 수주환경을 개선하여 회원사의 매출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업역 확대 최선

강원도회는 기계설비공사업의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설비건설업계의 도급영역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회원사 매출이익 증대를 위해 설비공사 수주환경을 개선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여건 마련

강원도회는 건설공사 예정가격산정에 기초가 되는 실적공사비 단가, 표준품셈, 자재가격, 노임단가를 현실화하여 적정공사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도시가스사업법령 규제 개선

강원도회는 가스시공업계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도시가스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방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회원사의 의사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강원도회는 강원지역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여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견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원 여러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평창 동계올림픽 공사에 대한

강원도회 설비전문업체 참여 보장

평창올림픽 관련 시설공사에 강원도회 회원사들의 참여를 보장 받기 위해, 강원도회는 전문공사의 도내 업체 의무 하도급제를 실시하도록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강원지역 회원사에게 당부 말씀

설비공사의 분리발주는 현행법상 강제조항이 아닌, 발주처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임의 사항입니다. 단일공사 분리발주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강원도회는 기계설비공사의 분할 시공이 효율적임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발주처에서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공공기관에서 분리발주가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온적인 발주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주처는 지속적인 관리와 설득을 통해 분리발주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육청은 우리 강원도회의 큰 고객이며 성장을 이끌어 주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분리발주를 철저히 하고 있는 교육청 및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비공사의 분리발주를 부정적으로 여겨 통합발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본 결과, 일부 업체의 불성실한 시공과 현장 감독과의 잦은 마찰로 인해 신축공사의 분리발주 뿐만 아니라 보수공사까지도 타 업종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이긴 하나 시·군 교육청의 통합발주는 곧 우리 회원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러

한 움직임을 타 기관에 확산되어 나간다면 우리 설비업계는 원도급자의 반열에 올라서지 못하고 다시 하도급자의 위치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분리발주는 협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성실시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 회원사가 타 시도에 비해 공공공사의 원도급 비율이 높고 분리발주가 많이 활성화 된 것은 그동안 여러 회원사들의 성실시공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회는 앞으로도 발주처에 분리발주 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원사 여러분도 성실시공으로 분리발주 공사의 긍정적 이미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리발주가 명문화되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업계의 성실시공이 보장되어 품질향상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정착되어야 가능합니다. 언젠가는 분리발주가 명문화 된 법률이 제정될 날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통합발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회원사 여러분의 성실시공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회는 회원사의 경영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하오니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회 장효성 회장은

- 1954년생
-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강원도시가스 상무이사 역임
- 대한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 제5대~6대 운영위원
- 대한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 제7대 부회장
-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의원

- 춘천세무서장 표창장
- 강원도지사 표창장
-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장
- 대한설비건설협회장 공로패
- 대한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장 공로패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감사패